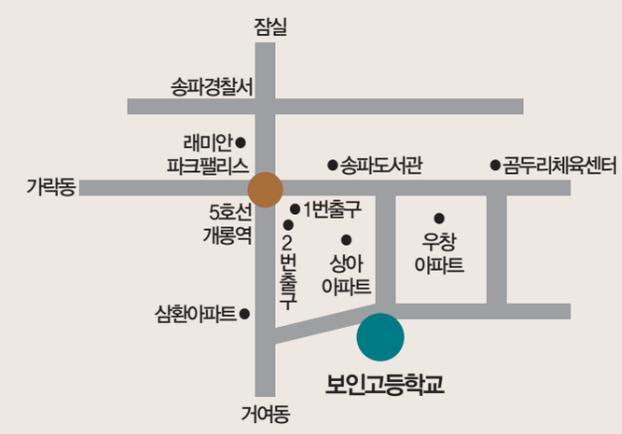




2014학년도
輔仁

보물을 찾아 떠나는 인생여행의 시작




 100년 보인, 천 년의 미래로 도약하는
보인고등학교
 138-860 서울 송파구 오금로49길 18
 Tel : 02-2043-6021 · Fax : 02-449-8063
<http://www.boin.hs.kr>

BOIN Highschool Magazine



BOIN HIGH SCHOOL MAGAZINE

Play Boin!

Vol. 16

- BOIN HOT ISSUE** 제7대 보인 학생회
- BOIN PEOPLE** 교사 문우식 · 류민수 · 박진석 · 공혜림, 박준화 PD
- BOIN ACTIVITY** 월드컵 그 이후
- BOIN DREAM** 아이스 버킷 챌린지
- BOIN NETWORK** 살짝 물어본 선생님 비밀, 남다른 속마음들

보인고등학교

나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

자율형사립고 보인고등학교입니다



너른 세상 꿈꾸는 아름다운 보인 이야기

편집장 민정원

일년동안 고생 많았고 내년, 더 좋은 교지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한다. 사진은 작년과 똑같이 ㅎㅎ



편집부장 박한재

음... 내가 직접 꾸려나가자니 참 힘들었던 1년이였다. 작년 동호 형이 많이 존경스러웠다. 1년 동안 부족한 나 따라서 열심히 활동해준 우리 부원들 사랑하고 고맙고, 화 많이 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 2년 동안 부족한 나 많이 도와준 차장 정원이 진짜 고맙다. 내년에는 더 좋은 교지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후배들이 화이팅! 교지편집부 사랑해요! 이젠 고3이다!



2학년 강지환

뭐 딱히 두드러진 활약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일년전 학기말에 내가 재미있게 보던 교지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것이 기쁘고, 내 이름 남는 것도 기쁜 일인 것 같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알찬 교지가 나왔으면 좋겠다.



2학년 이강현

한재와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쓸모있었다.



2학년 안규석

그렇게 큰 활동은 한 건 없지만 나름 즐거웠어. 교지 편집부원들 모두 수고했어~



2학년 차현민

교지편집부 기사를 쓰는 건 힘들었지만 정말 보람있는 일이었다. 모두 재밌게 읽으시고, 버리지 않는 분만 수능 대박 나시길~



1학년 정영준

1년 동안 선배들과 친구들에게 많은 것을 배워 좋았습니다.



2학년 박상준

지난 일년동안 너무 재미있었어. 한재하고 정원이 고생 많았고...



1학년 이정현

1년동안 교지편집부에서 잘 보냈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학년 김정현

교지를 만들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 이전에 자신의 책임감에 대해 돌아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학년 김은빈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 고민하다 옹취 추천으로 같이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재미있었고 뿌듯한 활동도 많이 한 것 같다. 1년 동안 친구들, 선배님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학년 박선후

별로 한 게 없는데 1년이 금방 지나가 버린 것 같다. 그래도 내가 원하는 기사를 쓸 수 있어서 좋았다.



1학년 김용후

처음부터 들어가고 싶었던 교지 편집부에서 친구들, 그리고 형들과 함께 교지를 만들어 기분이 좋고 뿌듯하다.



1학년 권오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이렇게 값진 노력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뿌듯하다. 부원들 모두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내년 교지에서는 더 좋은 기사 쓰도록 노력할게요.



1학년 문상혁

1년 동안의 교지편집부 활동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문부용

음...편집후기라, 지난 1, 2학기를 생각을 해보니 잘하거나 먼저 한 것은 없는 것 같아 죄송하고, 부장님 속만 볼태운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다음이라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 것 같으니 진짜 열심히 해서 동아리를 빛내도록 하겠습니다.

